

"2009학년도 9평 「선거와 여론 조사」 지문 분석"



... 1등급은
찍어도 정답을 찍는 이유

순수국어

유민우 지음

싼타복스

* 아래 내용은 학생들이 온라인에 올린 글들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국어를 말하다..

김지환

데카르트 회의론 칼럼을 보고 ○○에 있는 해설지를 봤는데 세 번째 문제가 아예 달랐다. ○○은 사실 읽어도 명쾌하게 이해가 안 가고 아니 그냥 잘 이해가 안 간다.

순수국어 칼럼이 훨씬 더 명쾌한 거 같다... 비록 그 풀이법을 생각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서 어렵지만.....

ㅋㅋㅋ다른 ○○○○○나 ○○○나 유명한 선생님들은 데카르트 어떻게 푸는 지 한 번 해설강의를 들어봐야겠다. 오늘은 정말 내가 이제껏 들어왔던 인강 강사나 교재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날이었다.ㅋㅋㅋㅋㅋㅋ

라일소년

와... 진짜 이런 개쩌는 글이 올라오는 게 믿기지 않고, 오히려 수능치기 60여일쯤 남은 시점에 만나게 된 것을 엄청나게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EBS라는 미친 괴물에게 휘둘려 헤매고 있는데 한 줄기 빛을 찾은 거 같다...

이번 칼럼을 보면서 왜 굳이 2008년도에 한씨연대기를 꺼냈을까? 왜 이번엔 13페이지나 될까 의아해했는데... 이걸 충격적이다. 내 책장에 꽂혀있는 ○○○ ○○? 지금 당장 밖에 던져 버려야겠다... 비교 따위가 안 된다... EBS와 기출 둘을 고민하다 순수국어를 만난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꼭 보겠습니다. 순수국어님 감사합니다ㅠㅠ

금대규

농무... 와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소름이 짹 돋았습니다. '역시 순수국어다'가 아니라 이것이 당연한 풀이법인데 정말 당연하게 푸는 걸 몰랐다니... 진짜 속된 말로 지리네요;;

공부하면서 '우와!' 외친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덕분에 자는 사람들 다 깨웠어요;;

재수생 입장이라고 하루 생각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10분 생각하고 봤는데 너무 아깝네요.ㅠ 저도 처음엔 그냥 처음과 끝부분의 이질감??? 정도만 느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도 도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ㅠㅠ 새삼 놀라고 또 놀랍니다. 역시 더 충실히 해야겠어요.

포공선생

아... 역시 최고입니다.....

순수국어님의 모든 칼럼 챙겨봤습니다. 그동안 비문학에 사용하던 각종 스킬들을 모두 버리고 정독하여 제대로 읽는 습관을 들였더니 항상 한두 개씩 틀리던 비문학의 정답률이 비약적으로 올랐네요ㅠㅠ

예전보다 속도도 훨씬 빨라져서 이제 웬만큼 어려운 지문들도 4분을 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칼럼 써주세요.

순수국어

[2] 2009. 09. [44~46] 선거와 여론 조사 지문

안녕하세요. 순수국어 저자 유민우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 대비 두 번째 칼럼의 소재는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선거와 여론 조사’ 지문입니다.

선거철이면 TV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자주 접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하고, 뉴스에선 ‘사표(死票) 방지 심리’ 등과 같은 용어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평가원 기출 문제 중에서도 이렇듯 선거와 여론 조사 결과의 관계를 다루는 지문이 있기에 같이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객관적으로 높은 난도를 보이는 지문은 아니지만 보기 해석, 문제 풀이 순서 등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문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항상, 그저 담담하게!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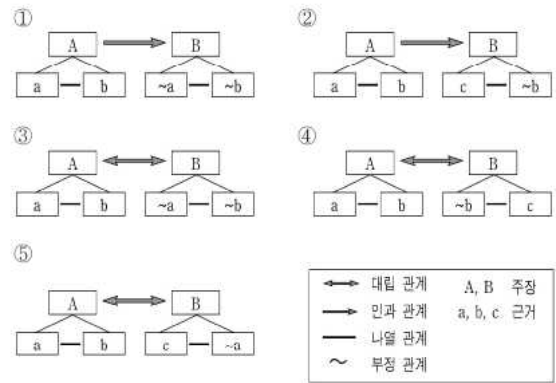
선거 기간 동안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조사 결과의 공표가 유권자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과, 공표 금지가 선거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을 제한하여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찬성론자들은 먼저 ㉠ ‘밴드웨건 효과’와 ‘열세자 효과’ 등의 이론을 내세워 여론 조사 공표의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킨다. 밴드웨건 효과에 의하면, 선거일 전에 여론 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사표(死票) 방지 심리로 인해 표심이 지지도가 높은 후보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열세자 효과에 따르면, 열세에 있는 후보자에 대한 동정심이 발동하여 표심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각각의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가 어느 쪽으로든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공정한 여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리고 금권, 관권 부정 선거와 선거 운동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많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도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든다.

이와 달리 반대론자들은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알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알 권리는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는 데 전제가 되는 권리인 동시에 국민 주권 실천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사상 및 의견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이 권리는 언론 기관이 ‘공적 위탁 이론’에 근거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충족된다. 후보의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 등에 관한 여론의 동향 등은 이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언론이 위임받은 알 권리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논리이다. 또 이들은 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방해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음도 강조한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 기간 내내 공표를 제한했던 과거와 비교해 보면 금지 기간이 대폭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공표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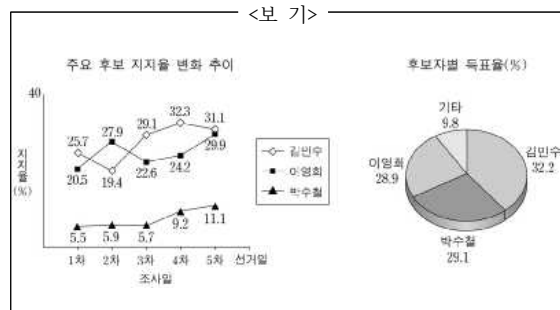
44. [A]와 [B]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5. 위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론 기관이 알 권리를 대행하기도 한다.
- ② 알 권리는 법률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
- ③ 알 권리가 제한되면 표현의 자유가 약화된다.
- ④ 알 권리에는 정보 수집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 ⑤ 공표 금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알 권리는 강화된다.

46. ㉠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 ① 이영희 후보의 지지율과 득표율을 보니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② 박수철 후보의 5차 조사 결과와 득표율을 보니 열세자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③ 2차와 3차 조사 사이에 김민수 후보에게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④ 3차와 4차 조사 사이에 박수철 후보에게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⑤ 김민수 후보와 이영희 후보의 득표율을 보니 열세자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지문 분석

1문단

선거 기간 동안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조사 결과의 공표가 유권자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과, 공표 금지가 선거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을 제한하여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에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잖아. 그런데 이 결과를 공표하는 걸 금지하자는 얘기가 있다고? 왜지? 여론 조사 결과를 밝히는 게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건가?’

아, 그게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있구나. 사람들의 투표 의사가 여론 조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나 보구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들이 누구를 뽑을지를 참조해서 선택을 하나 보네.

반면에 알 권리 침해를 이유로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 그래 양쪽으로 다 생각해볼 수 있겠어.’

어떠한 내용이든, 소재든 쫓지 말고 우직하게 읽어 갑시다. 편견 없이 생각을 충분히 넣어가며 말이죠.

2문단

찬성론자들은 먼저 ㉠ ‘밴드왜건 효과’와 ‘열세자 효과’ 등의 이론을 내세워 여론 조사 공표의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킨다. 밴드왜건 효과에 의하면, 선거일 전에 여론 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사표(死票) 방지 심리로 인해 표심이 지지도가 높은 후보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열세자 효과에 따르면, 열세에 있는 후보자에 대한 동정심이 발동하여 표심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각각의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가 어느 쪽으로든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공정한 여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리고 금권, 관권 부정 선거와 선거 운동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많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도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든다.



‘일단 찬성론자들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 찬성론자라고 함은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를 금지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걸 거야. 헛갈리면 안 되겠지.

밴드왜건 효과와 열세자 효과라는 게 등장하네. 그동안 해왔듯이 둘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겠다.’

A와 B라는 어떤 두 대상이 나오면? 우리는 그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 왔습니다. 관계에 대한 인식을 습관적으로 따져 봐도 좋다고 했죠.

‘밴드왜건 효과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열세자 효과의 열세는 ‘우세하다, 열세하다’할 때의 열세 같은데. 열세에 있는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개념인가? 내려가 보자. 둘 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가 봐.

밴드왜건 효과에 따르면 사표 방지 심리가 생겨서 지지도가 높은 후보를 찍게 된대. 어차피 안 될 사람을 찍기보다는 덜 만 한 사람을 찍으려 한다는 말이겠지. 그래 그렇게 된다면 공정하지 못하겠네.

바로 이어서 열세자 효과에 대해서도 말해주네. 아... 동정심 때문에 열세에 있는 사람을 찍는다는 게 열세자 효과구나. 밴드왜건 효과와 정반대로 작용하는 거네.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어쨌든 둘 다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아 투표를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구나. 그래서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고 하네. 심리적인 것이니까 그렇겠지. 뭐, 관계로 체크해 뒀도 괜찮겠고.’

선거일 가까워짐 → 효과가 커짐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 차이점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당연히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두 대상 사이의 관계로 체크할 수 있죠.

‘여론 조사가 공정한지도 염려하는구나. 여러모로 볼 때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럼 이 다음에는 ‘공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텐데, 미리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항상 미리 예상해 갑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 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읽은 맥락을 바탕으로요!

‘위 문단에서 읽은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알 권리 침해’를 주된 근거로 잡는 것 같았어. 그럼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명하게 알려주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네.’

3문단

이와 달리 반대론자들은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알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알 권리는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는 데 전제가 되는 권리인 동시에 국민 주권 실천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사상 및 의견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이 권리는 언론 기관이 ‘공적 위탁 이론’에 근거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충족된다. 후보의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 등에 관한 여론의 동향 등은 이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언론이 위임받은 알 권리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논리이다. 또 이들은 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방해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음도 강조한다.



‘그래,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알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대.

반대론자들은 알 권리를 의사 형성에 전제가 되는 권리로 보는구나. 위에서 봤던 말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본다면 타인의 의견을 참조해서 결정하는 것일지라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한다는 말인가 보네. 필요한 정보와 사상, 의견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말을 보니까 그 생각이 분명히 맞겠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주장도 이해가 되지.

사적으로 여론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것이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 위임한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공적 위탁 이론’이라는 표현을 썼구나. 그래서 언론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

이 문단 처음에서도 ‘표현의 자유’ 얘기가 나왔는데 또 등장하고 있네.

그 외에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개념인가? 예를 들어 앞에 나온 밴드왜건 효과나 열세자 효과와 관련된 통계들이 있다면 될 텐데. 어쨌든 앞에서 나온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지.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 주면 좋겠다.’

4문단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 기간 내내 공표를 제한했던 과거와 비교해 보면 금지 기간이 대폭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공표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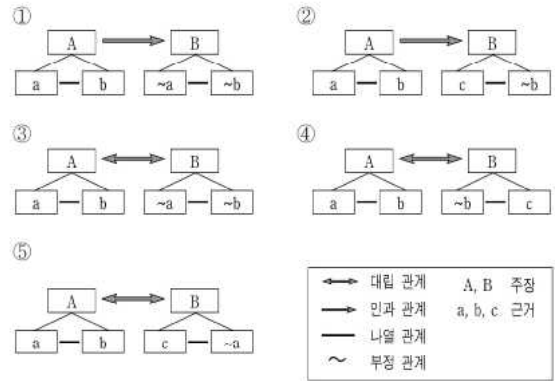


‘아, 지금은 선거일 6일 전부터 당일까지 공표를 금지하고 있구나. 그래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

예전에는 내내 공표를 제한해왔다는 걸 보면 과거에 비해 공표를 허용해주는 쪽으로 진행됐구나 봐. 지문 내용에만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의견을 둘 다 수용하면서도, 반대론자의 주장에 약간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봐도 되겠어. 어쨌든 과거보다는 금지 기간이 줄었으니까.’

문제 분석

44. [A]와 [B]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와 [B]의 관계? [A]는 찬성론자들, 즉 공표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B]는 반대론자들이니까 공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 대립되는 관계였어.’

선지로 들어가 볼까?

아, 여기서 각각의 근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까지 묻고 있네. 그럼 좀 더 생각해 보면 되지.’

처음 생각할 때에는 가장 큰 맥락에서의 구도만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지문의 각 부분을 읽을 때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관계를 체크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문 전체를 포괄하는 관계’를 한 번에, 확실히 잡아내기는 어렵죠.

저는 지문의 내용을 미리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해석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차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준의 예상과 해석’이니까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선지로 들어가려 했을 때 더 깊은 수준의 관계 체크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밴드왜건 효과, 열세자 효과를 근거로 들고 있었고, 반대의 입장에서는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찬성론자들의 근거는 증명이 안 됐다고 말했어.

다시 선지를 보면... 5번이겠네.

답 5번.’

45. 위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론 기관이 알 권리를 대행하기도 한다.
- ② 알 권리는 법률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
- ③ 알 권리가 제한되면 표현의 자유가 약화된다.
- ④ 알 권리에는 정보 수집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 ⑤ 공표 금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알 권리는 강화된다.

↓

‘가볍게 풀면 되겠네.

1번 선지 - 그래. 그러니까 보장해줘야 한다는 거지.

2번 선지 - 지금 지문을 읽어온 맥락에 따라 생각해 보면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거잖아. 그러니 위헌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지.

오히려 정확하게 하나씩 1:1대응하려고 하면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술어가 달라진 상황도 생각해 보세요.

제한되기도 한다?

제한된다?

제한할 수도 있다?

지금 정도로 서술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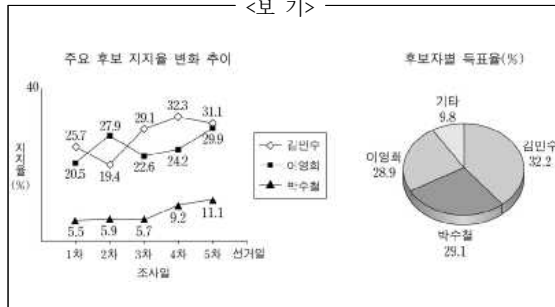
3번 선지 - 2번 선지를 판단했던 맥락에서 같이 생각할 수 있지. 표현의 자유가 약화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4번 선지 - 아, 장난도 아니고. 1번 선지부터 4번 선지까지 다 이어져 있는 말뿐이네.

5번 선지 - 공표를 금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알 권리가 강화된다고...? 지문에 따르면 공표를 금지하면 알 권리가 제한을 받는 건데.

답 5번.’

46. ㉠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 ① 이영희 후보의 지지율과 득표율을 보니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② 박수철 후보의 5차 조사 결과와 득표율을 보니 열세자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③ 2차와 3차 조사 사이에 김민수 후보에게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④ 3차와 4차 조사 사이에 박수철 후보에게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⑤ 김민수 후보와 이영희 후보의 득표율을 보니 열세자 효과가 나타난 것 같군.

↓

‘㉠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하라고 하니까 순서대로 생각해 보자.

일단 ㉠이 뭐지? 밴드왜건 효과와 열세자 효과. 이 관점으로 <보기>를 바라보라는 거네.

일단 <보기>의 왼쪽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지지율과 관련된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어. 그래프를 볼 때의 기준은? 축부터 관찰하는 거지. x축에는 조사일이 나와 있고 1차부터 선거일까지 하나씩 표시되어 있네.

y축을 보면 지지율이고. 여론 조사가 거듭될수록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라는 거구나.’

그래프 해석의 기본은 축이라는 것을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기본이고, 우리는 그 기본을 따라가며 해석할 겁니다.

이러한 기본이 쉬운 문제에서는 효용을 체감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득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일단 1차 조사에서는 김민수 후보의 지지율이 1위였네. 이명희 후보가 2위였고, 박수철 후보가 아주 큰 차이로 3위였어. 그 이후에는? 3차 조사까지는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앞지락뒤치락하다가 김민수 후보가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어. 박수철 후보는 안쓰럽게도 계속 맨 아래에 있지만 약간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원 그래프를 보면 이번엔 득표율을 나타내고 있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주는 건가 봐.

일단 김민수 후보가 1위를 했고, 박수철 후보가 2위, 이명희 후보가 3위.

뭐? 박수철 후보가 2위라고?

응?

그 안쓰럽게 생각했던 박수철 후보가?

열세자 효과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나 보네.

지문에서 밝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했습니다. 과한 해석, 특수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해석일 뿐이죠.

‘지금 발문이 말하는 건, 밴드왜건 효과와 열세자 효과를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하라고 하는 건데 박수철 후보와 열세자 효과 말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3차와 4차 조사에서의 김민수 후보를 보면 밴드왜건 효과를 생각할 수도 있겠어. 지지도가 1위인 후보 쪽으로 표심이 더 이동한 거니까. 물론 같은 시기에 박수철 후보에게 열세자 효과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선지로 들어가 볼까?

- 1번 선지 - 이영희 후보는 여론 조사 결과에서 2위였는데 결과적으로도 변한 게 없었어. 오히려 마지막 여론 조사보다 득표율이 약간 낮았잖아.
- 2번 선지 - 박수철 후보에게 열세자 효과! 아주 극적으로 나타났지. 이게 깔끔한 답이네.
답 2번.’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첫째, 우리는 발문에서 요구하는 대로 ㉠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기준에 따라 <보기>의 그래프를 해석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 열세자 효과를 생각하며 두 그래프를 비교한다면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박수철 후보가 열세자 효과에 힘입어 아주 높은 득표율을 끌어냈다는 것이죠.

둘째, 지문에 따르면 사실 밴드웨건 효과와 열세자 효과는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가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표심이 이동'한다는 면에서는 각 차수의 여론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와 최종 득표율'사이의 관계를 두고 효과가 미쳤는지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수철 후보에 열세자 효과를 주된 해석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셋째, 2번 선지에서는 박수철 후보의 여론 조사 결과와 최종 득표율을 비교하며 열세자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그게 '정답 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필연입니다.

글을 정확히 읽고 발문을 정확히 받아들이며 <보기>를 그에 맞추어 해석했을 때!

기가 막히게 정답 선지가 눈에 띄는 필연이란 말이죠.

그게 글을 정확히 독해한 상황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결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보통 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들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담이지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보기> 해석까지 이와 같이 해석한 후, 선지를 훑어 보며 '박수철 후보 - 열세자 효과'가 등장한 선지부터 검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번 선지를 '먼저' 판단해 보게 되죠. 만약 2번 선지가 5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정답 선지가 5번에 배치되어 있다고 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모든 선지를 판단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도 변함 없이 같은 시간으로 정답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체감 난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선택하게 될 테니까요.

진짜 본질에 입각한 기본기가 탄탄히 갖춰진 이들에게 사소한 변화, 형식적인 차이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유일한 바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뵈겠습니다.

**항상
그저 담담하게**